

역사소설 『별빛 사월 때』와 함께하는 융합 교육

별빛 사월 때

최시한 장편소설 | 문학과지성사 | 296쪽 | 값 14,000원 | 131*195mm |
제1판 제1쇄 발행 2022년 9월 15일 | ISBN 978-89-320-4050-9 (03810)

“별빛 사월 때’는
어둠이 잦아들고 먼동이 트는 때이다”
— 「작가의 말」에서



저자 최시한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명예교수.

소설가 소설집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간사지 이야기』 『낙타의 겨울』 등을 발표.
* 연작소설집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에 수록된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과 「구름 그림자」는 국어과 교재에 많이 수록, 인용됨.

문학교육가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소설의 해석과 교육』 『콘텐츠 창작과 스토리텔링 교육』 『수필로 배우는 글읽기』 등 지음.

* 특히 『수필로 배우는 글읽기』(제3판)는 1994년 처음 발간된 이래 30년 가까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는 대표 서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

역사문화 교육 자료 저자 『조강의 노래—한강하구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강미와 공동 집필.

* 이 수업 자료는 문학과지성사 홈페이지(www.moonji.com)에 소개되어 있는 『별빛 사월 때』의 도서 상세 페이지 (오른쪽의 첨부파일 다운로드)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라와 당에 멸망당한 백제의 무사가 두 나라의 전쟁에 뛰어든다!

전쟁과 팬데믹의 시대에 다시 보는 삼국의 투쟁과 통일!

소설에는 사람의 갖가지 경험이 녹아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역사소설은 실제의 역사, 사회, 언어, 풍속 등을 재현하고 있어서 각종 지식과 정신 능력을 융합적으로 기르기에 적합하다. 이 글은 장편 역사소설 『별빛 사월 때』가 지닌 교육적 가치와 그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1. 한국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하나 덜 알려진 시기(백제 멸망(660) — 백제 부흥전쟁 — (고구려 멸망) — 나당전쟁(670~676))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로,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백제 부흥전쟁(660~663)은 한국사 초유의 독립 회복 전쟁이며, 동북아 고대사에서 4국(백제, 신라, 당, 왜국)이 참가한 큰 국제 전쟁이었다. 또 7년 후에 일어나 일곱 해 동안 계속된 나당전쟁은 삼한(三韓)이 연합하여 당을 몰아냄으로써 민족적 공동체 의식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전쟁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와 관심의 부족으로 한국 고대사의 이 시기는 충분하고 바르게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나당연합군에 일찍이 패망한 백제의 사정은 승자 중심의 역사 서술에 묻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이 소설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혼란스런 그 시기를 백제 중심의 소설로 그려냄으로써 1300여 년 전 삼국의 격동하는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체험시켜준다. 아울러 삼국 통일로 나아가는 스토리 전개를 통하여 국가란 무엇이며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사색하도록 이끌어준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고구려 멸망 3년 후이자 나당전쟁 2년째인 671년 여름의 3일 동안이다. 이 사흘 동안 일어난 '현재'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백제 멸망부터 그때까지 11년간 겪은 전쟁과 방황으로 뒤엉킨 '과거'가 삽입된다. 이 기간은, 한마디로 나당이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킨 후, 한반도를 독식하기 위해 도독부를 설치한 당에 맞서 신라가 긴 싸움을 시작하는 초기이다. 이때 백제 사람들은 의지할 나라를 잃고 '남의' 전쟁판에 끌려다니며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주인공 '물참'은 28세의 백제 무사이다. 그는 귀족으로, 왕족인 '부여'씨에서 갈라져 나온 '오서'씨 집안 출신이되 서자庶子이다. 멸망한 백제가 부흥하고 백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길을 줄기차게 찾는 그는, 당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 당이 백제 땅에 설치한 도독부의 높은 벼슬아

치가 된 형과 대립한다.

주인공은 복신, 흑치상지 같은 백제 부흥군 우두머리들의 살해와 배신, 왜국으로 도망치는 지배층의 폭력과 이기주의, 그리고 극한적으로 굶주리고 핍박받는 백성들의 참상 등을 겪으며 절망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방향 끝에 “큰 뜻”을 세우고 원수였던 신라와 손잡고 당을 공격하는 데 뛰어든다.** 이 소설의 결말부에서 그가 고구려 부흥군, 신라군과 연합하여 참여하는 전쟁은 석성(부여군 석성면) 전투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거기서 이긴 신라 연합군은 곧장 사비성으로 진격하여 당이 세운 웅진도독부를 무너뜨림으로써 나당전쟁의 제1차 전기를 마련한다.

독자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거기서 주인공이 모색 끝에 내리는 결단의 과정을 읽고 정리해본다면, 잘 모르던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물론 **민족적 공동체가 형성되는 삼국 통일 과정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한국이 분단된 나라를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사색하는 계기가 될 터이다. 아울러 감염병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 공동체의 의미가 새삼 부각되는 현실에서, 한국인이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소설의 그러한 가치와 연관된 질문이나 학습 과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소설에서 ‘도독군’이란 어떤 군대이며, 신라는 왜 그와 대립하였나?

나. 결말부에서 주인공 ‘물참’은 백제의 원수였던 신라와 손잡고 나당전쟁에 뛰어든다.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데 크게 영향을 준 인물로 정무 좌평과 스승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각각 어떤 도움을 주었나? (소설에 있는 말을 따오지 말고 요약하고 상상하여) 그들이 물참에게 했을 법한 말의 형식으로 답하시오.

정무 좌평 : “물참아, ()”

스승 : “물참아, ()”

다. 물참이 신라, 고구려 부흥군 등과 손잡고 당과의 전쟁에 나서는 것은 주체적 결단인 동시에 현실을 고려한 일종의 타협이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로 「둘째 날-낮후 시루성」에 나타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 2가지를 택하여, 각각 1문장으로 답하시오.

라. 이 소설에서 사비성 함락 때 잃어버린 향로, 어머니가 애타게 찾는 그 보물은 실제 향로를 소재로 삼은 것

이다. 1300여 년 만에 발견된 그 국가 보물*에 대해 조사하시오. 그리고 소설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물참에게 그것을 찾으라고 당부하는 까닭을 1문장으로 간추려 적으시오.

2. 실제 장소를 배경으로 '영웅적' 주인공의 이야기가 빠르고 극적으로 서술되므로 독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연극은 물론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웹툰 등으로 재창작되어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역사 이야기’의 한 모형을 제시하고 싶었다.”(작가)

이 소설의 앞에는 무대인 금강(백강) 유역 지도가 있다. 독자는 거기에 주인공이 움직인 경로를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만큼 배경이 분명하고 스토리가 긴박하게 전개된다.

백제 후기의 중심지는 금강 유역이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먼저 성城으로 보면 임존성(예산군), 사비성(부여군), 석성(부여군), 가림성(부여군), 주류성(부안군) 등이 있는, 주로 금강을 중심으로 한 충남, 전북 지역이다. 포구로 치면 회이포(보령시 오천항), 사포(보령시, 서천군 경계의 부사방조제), 기벌포(서천군 장항읍) 등이 나오고, 나루의 경우, 주인공 물참이 특명을 받고 금강변의 곱개(익산시 용포면), 갯개(부여군 양화면) 등을 건너고 지난다. 그 밖에도 오서산(보령시, 청양군, 홍성군의 경계), 부산(사비성 건너편), 은개와 솔섬(보령시 주교면) 등, 현재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독자들, 특히 그곳이나 부근에 사는 이들이 **고장의 지리와 역사를 아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한편 주인공은 어린 시절, 극한의 가뭄과 메뚜기 떼 습격으로 황폐해진 벌판에서 인육人肉을 구워 먹는 현장을 목격하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힌다. 또 그는 전쟁 현장에서 여러 ‘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자신과 백제가 나아갈 길을 끝없이 고민한다. 예를 들면, 정무 좌평의 밀명을 띠고 흑치상지 장군한테 갔다가 거부 의사를 듣고 돌아온 그는, 복신 장군이 풍왕 일파에 잡혀 죽고 좌평이 자결하는 현장에서 ‘부흥백제국’이 몰락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무력감에 빠진다.

* 백제금동대향로. 국보 287호. 1993년 12월 12일 부여 사비성의 나성 동문과 백제 고분들 사이의 절터를 발굴하던 중, 서쪽 공방工房 바닥의 나무로 된 수조 속에서 발견됨.

오늘의 독자, 특히 청소년 독자는 영화, 웹툰,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 게임 등의 시각 중심 매체에 길들여져 날로 문해력(리터러시)이 떨어지고 있다. 그 점을 고려하여 이 소설은 추리소설적 구성을 하고, 장면 중심의 간결한 서술, 극적인 대화, 빠른 전개 등을 취하였기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오늘날 '이야기 산업'의 생산물들은 지나치게 오락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자극적인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백제를 비롯한 삼한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내적 모험' 이야기이며, 당시의 사회와 풍속—신분제도, 이념, 종교, 의식주 생활, 언어문화 등—을 재현한 이야기이다. 가령 국가 제사를 지내는 무녀巫女의 한 사람인 주인공 어머니가 사비성 함락 때 잃어버린 향로를 찾고자 애쓰는 사건은, '호국불교'가 발흥하던 시대에 전통적 검님 숭배 신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요컨대 이 소설은 본격문학의 깊이와 예술성을 추구하되 다중매체(멀티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변화된 서술을 했으므로 독자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 점은 이 소설을 가지고 벌이는 여러 교육 활동을 보다 흥미롭고 보람되게 해줄 터이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된 질문이나 과제의 예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소설의 배경이 된 장소들(성, 포구, 산, 나무 등) 가운데 한 곳을 택하여, 그곳의 지리와 역사를 조사하시오.

나. 젊은 아가씨 '고사'는 자기 가족들(아버지인 '현령,' 주인공 물참의 친구인 오라버니 '천득,' 올케인 천득의 아내 등)과 달리 물참과 매우 통하며 그를 좋아한다. 그녀가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가족들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답해보시오.

다. 정무 좌평이 도모하던 일은 실패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그 일에는 복신 장군이 연루되어 있고, 끝내 두 사람의 죽음에 빠뜨리고 만다. (이 문제는 3~4명이 한 조가 되어 토의를 통해 답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① 흑치상지 장군이 거부한 그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 나름대로 상상하여 답하시오.

② 풍왕 일파가 '역모'라고 부르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주인공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 후에 그가 하는 행동과 결말부의 결단을 아울러 생각해볼 때, 그는 그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라'라는 말을 반드시 사용하여, 1~2문장으로 답하시오.

라. 이 소설 전면前面的 ‘현재’ 3일 동안 진행되는 사건의 중심에는, 물참이 형의 주검을 찾아 장례 지내려는 일이 들어 있다. 결말부에서 물참은 그가 살았음을 알고 왜로 도망치는 형을 만나러 가다가, 자신이 왜 굳이 만나려 하는지 반문하며 “그의 장례는 끝났다”(284쪽)고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주인공과 그의 형이 백제 멸망 이후 걸어온 길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염두에 두고 풀이하시오. (100자 내외)

3. 삼국이 통일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과 논쟁을 담고 있어서, 토론과 논술의 자료로 적절하다.

“…… 이 기나긴 전쟁을 끝내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서로 통하는 족속끼리 사람대접받으며 살아가려면, 지금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뜻이 통한다면, 피가 다르면 어떻게 원수 간이면 어쩌냐? 세월은 빠르고 무심하게 지나간다. 억울해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고, 싫더라도 인정하면 마음 놓고 더불어 살 수 있다.”(254~255쪽)

삼국은 무수히 싸웠다. 고구려에 맞서 때로 손을 잡기도 하였으나, 백제와 신라가 특히 그러했다. 두 나라의 대립은 마지막 시기에 양상이 줄곧 바뀌었다. 백제는 당과 연합한 신라에 망한 뒤에도 부흥군이 계속 나당과 싸웠다. 부흥전쟁 패배 후에는 당이 점령지에 설치한 도독부의 백제군이 신라와 갈등하였다. 이는 고구려 멸망 후, 삼한을 모두 차지하려는 당과 그에 대항한 신라 사이의 전쟁에 흡수되었는데, 이 나당전쟁은 7년이나 이어지다 당이 물러가고서야 끝났다.

그 과정에서 백제인은 분열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고구려 유민과 함께 신라를 도와 삼한에서 당을 물리치는 데 힘을 합쳤고, 거기서 공동체 의식이 싹텄다. 그것은 대의를 위한 새로운 사고의 열림을 요구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나라, 족속, 계층 등 사이의 갈등과 타협을 요구했다. 이 소설은 바로 그러한 상황과 역사의 흐름을 물참이라는 백제 무사 중심으로 그린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이 거센 오늘날, 나라 혹은 국가는 국경과 공동체 의식이 흐린 고대古代的 어느 시기를 닮아가고 있다. 지금 한국인은, 또다시 나뉜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예전처럼 칼과 활을 들 수는 없다. 이 소설은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응시하고 미래를 사유할 마당이 되어줄 것이다.

실제로 이 소설은 ‘(연)극적이다’ 혹은 ‘드라마틱하다’고 할 만큼 장면 중심으로 서술되며, 대화와 논쟁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당의 힘을 빌려 백제 중심으로 삼국을 통일하려는 주인공의 형과 그에 반대하는 주인공이 격렬히 논쟁을 벌이는 장면은 거의 한 장을 이루고 있다. 한편 주인공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평민, 노비 등과 자유로이 대화하며 ‘마땅히 나아갈 길’을 즐기게 찾아 헤맨다.

이 소설의 결말부에서 주인공은 백제의 원수였던 신라와 연합하기로 결심하고 신라 장수와 대화한 뒤, 따르는 이들과 함께 나당의 전쟁터로 출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의 형은 집안의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안은 채 왜국으로 도망치며, 친구 천득은 왜국으로 가는 이들이 타는 배 사업을 하여 이익만 추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가면서 주인공이 내리는 결단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는 활동은, 정보를 결합하고 인물의 내면을 상상하여 소설 문해력을 기르는 물론, 서로 다른 주장을 조정하며 공동체의 앞날을 모색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공공적 가치 의식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 학생별로 각 인물 역할을 맡아 토론을 벌이거나, 주인공에 따르는 여러 평민, 노비들의 주장을 학생들이 대신 펴보는 논증글을 짓게 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질문 혹은 과제거리를 더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인공은 충격을 받으면 심하게 토하는 증상(심리적 트라우마)이 있다. 그 증상은 대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또 그것은 주인공의 본바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가?

나. 천득의 성격은 주인공과 대조적이다. 현실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두 인물의 성격적 차이점을 적고, 당시 백제인의 현실에서 천득의 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해보시오. (100자 내외)

다. 나라를 잃은 백제의 백성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주인공 물참과 그의 형은 극심하게 대립한다. (특히 소설의 「첫째 날 - 형」 참고)

- ① 학생을 ‘물참 조’와 ‘형 조’로 나누어 두 사람의 주장을 펴며 논쟁을 벌인 뒤,
- ② 그 과정에서 안 것과, 물참이 겪은 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그가 마지막에 신라와 연합하는 행동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논증글을 지으시오. (400자 내외)

라. 이 소설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 혹은 사상 몇 가지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 있다. 그것은 대개 물참과 그가 모신 정무 좌평, 스승 등의 말, 생각, 행동 등으로 표현된다.

다음 항목들 중 하나를 택하여, 그에 관해 한국 역사, 문화에 '일반적으로' 자리 잡은 사상을 조사하고, 이 소설에 나타난, 그에 관해 비판적인 생각을 적으시오. (150자 내외)

* 선택 항목 : 호국불교, 충충 사상, 가족(가문)주의

4. 한국어 본래의 자연스런 모습을 추구한 문장이므로 표현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1300여 년 전의 백제어를 살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 소설은 오늘의 독자에게 익숙한 현대 한국어를 쓴다. 다만 예전 같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 근래 수입된 말들을 피하고 사전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 토박이말과 쉬운 한자어를 씌으로써 과거 한국어의 자연스런 모습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잃어버린 말을 살리고 잘못 쓰이는 말을 바로잡아 표현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날 말을 마구 사용하고 외국어를 남용하는 인습을 바로잡아 언어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 혹은 과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소설(전체 혹은 교사가 지정해준 어느 대목)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① 사전에서 '해당 문맥에 맞는' 뜻을 찾아 풀이하시오. (20개 이상)

② 그 말을 사용하여 각각 문장 하나씩을 지으시오.

나. 이 소설의 인상적인 대목(혹은 교사가 지정해준 어느 대목)을 베끼시오. (꼭 손글씨가 아니어도 좋음)